

# 나이팅게일과 간호

한 윤 복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교학감)

## I. 서 론

Nightingale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호가 인간존재와 함께 깊이 관련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직 간호가 우리 사회에 충분히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현실에 있어서 그 기초를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해 그의 이념을 새삼 더듬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Nightingale은 단순한 인도주의자나 자선가라고 하기 보다는 확고부동한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실현하는데 일생 정열을 불태운 위대한 사상가였다고 볼 수 있으며 Nightingale만큼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실천에 옮긴 사상가는 별로 없었다고 본다. 20세기 중간부터 근대간호가 새삼스럽게 그 존재의 기반을 재구축 하고자 할 때 우리는 Nightingale 간호를 좀 더 연구하지 않고 다만 우리들의 존재와 역할을 파사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120여년전에 이미 Nightingale은 다소 소박한 형태이긴 했으나 참 간호의 모습을 파악하여 방향을 제시했고 그의 논리를 실천으로 옮겼는데 왜 간호의 존재가 우리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II. Nightingale 간호의 본질

그의 저서를 보면 “이것은 사실이다” 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최선인가”하는 의문을 반복하면서 언제나 사실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발전했다.

Nightingale의 건강법칙은 지금 우리들이 볼 때 지

극히 당연한 이치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독창적인 생각이었다.

150편이 넘는 그의 저서와 논문 중에서 Notes on Nursing—간호에 관한 일 들—의 부제인 what it is, what it is not—참 간호와 간호가 아닌것—이야말로 Notes on Nursing의 주장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간호자의 행위는 간호라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참 간호란 첫째, 타인의 복지를 바라는 간호자의 내적 마음의 발로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자연법칙 즉, 과학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간호행위에 있어서 간호자나 피간호자가 그것이 간호라고 생각해도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간호가 아니라는 뜻이다.

Nightingale 간호는 두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뜻 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첫째, 실천의 중요성이다. 그는 물물의 정신으로 독일에서 수학하고 Crimia 전쟁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간호와 같은 인간의 상호작용은 실천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으며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상대의 존재와 자기의 존재의 진실을 발견하고 상대에 대해서 관찰하고 사실을 파악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방법을 추구했다. 이것이 그의 간호의 핵심이었다. 그는 “건강이란 좋은 상태를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힘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고 “질병이란 건강을 저해하고 있는 조건을 제거하려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며 자연은 그것을 교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자연의 시도를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했다. 또한 “질병간호와 건강간호는 모두 자연이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즉, 자연이 질병이나 상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때 가장 바람직한 조건으로 생명을 돌보는 것

이고 환자의 생명력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간호의 본질과 간호를 자작기능을 논술했다.

Nightingale에게는 투철한 간호교육이념이 있었다. 그는 간호행위 중에는 사람으로 부터 사람으로 밖에는 전승될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화 하기 어렵고 정면으로 말할 수도 없으며—물론 그의 간호교육은 지필이나 시필 및 강의를 소중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어린 내용은 교과과정화될 수 없는 것, 즉 주형의 교과과정이 있다고 보았다. 간호현장에서 경험있는 선배나 책임자가 소수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지필이 아니라 인간을 간호하는 일은 강의나 책만 가지고는 배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훈련(training)이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 여러분 속에 있는 재산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그의 서한(No.9, 1883)에서 설명하고 있다.

Nightingale이 말년에 제자들에게 보낸 서한은 훈시, 강의, 설교 내지는 간호학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시대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알아 들여지는 간호의 본질을 자유롭게 서술했다. 그는 환자를 말로 지도하는 것은 무효라고 되돌이 하면서 말로만 지도하는 것은 간호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그릇된 간호가 되어 오 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중을 감동시키는 힘은 설교가 아니고 인격이며 일하는 형태나 과정은 같을지라도 어떤 간호원의 역할은 모든 생명을 비추는 태양과 같고 또 그렇지 못한 기계와 같은 간호원이 있다고 했다. Nightingale 간호학교가 개설되고 20년쯤 경과하고 간호가 교양 있는 여성들에게도

매력적인 직업으로 부각되고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나 상류층 귀부인들의 교육에 있어 많은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서한(No. 13, 1897)에서 간호의 미래상을 내다 보면서 "간호는 위기에 놓여 있다. 여성과 말중에서 광신은 어느 것을 선택 하겠습니까? 어느 편이 참된 간호가 될 수 있을까요? 19세기는 여성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누가 말한 바 있는데 20세기는 말의 세기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나는 지금 우리들이 말에 질석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열려운 합니다. 20세기는 사실의 시대가 아니고 사실을 떠난 광신의 시대가 되어버릴 위험을 느낍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1. 간호는 시력의 조류에 따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열의를 잃게 될 것이다.
2. 한쪽에서는 금전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3. 간호를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할 뿐 천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4. 인문계 여자대학이 많이 개설되면서 우수한 여성들이 책과 강의에 의존하는 학문을 택하게 될 것이다.
5. 원장실습을 도의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6. 건전한 병원조직으로서의 필수조건을 고려하지 않거나 간호원의 지도훈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7. 진보하기 보다는 어떤 틀에 맞추어 갈 우러가 있다.

1858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Notes on Hospital”에서 “병원이 구비해야 할 제일조건은 병원은 환자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종합정리 했을 때 이것은 간호의 범주를 떠나서 병원건축설계와 병원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상최초의 저술이다. 그는 병원을 비롯하여 각종 연관시설을 견학하면서 새로운 테마를 사실대로 논평했는데 이 책은 Notes on Nursing 과 함께 당대의 best seller였다고 한다. 병원 개혁이나 신축문제에 대해서 사망에서 직문을 위촉해 오는 한편 Medical Times and Gazette 판보는 사망율이 높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의학전문가들이 격분하는 반박논평도 했다. Nightingale의 병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병원건축과 시설이 발달하여 효율적으로 간호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Nightingale은 일찌기 도시와 농촌 보건사업의 방향도 제시한 바 있다(1894). 농촌생활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때는 우선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훈련된 부인이 저소득층 부인을 방문하고 계몽지도하는 일을 제시했다. 그리고 농촌부인을 대상으로 일을 할 때는 제공의식을 버리고 개개인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이해를 추구하면서 수백년 묵은 미신과 불결하고 부주의한 생활습관

이 수년간의 우리의 꾸준한 노력과 활동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1876년 4월 1일자 Time 지에 “빈민간호의 필요성”을 기고하여 인간, 개인이 병들면 사회가 병이 든다고 역설하고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여 선진 사회, 복지사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Nightingale은 면허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유는 정신적, 실천적

생활을 시험에 의해서 측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성실한 행동이나 생활이 침해되어 최소한도의 실습을 요구하거나 단순한 문장이나 말로써 능숙한 기술에 대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규칙이나 법률보다 개인이 도달하고 있는 수준을 더 중요시했다. 즉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개인은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으나 공동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역시 개인이라고 보고 규칙은 사문화되기 쉽고 규칙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개인이 도달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외의 것은 조개껍질이나 봉투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다.

1872년 서한 No.1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신이 다만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한번 정규과정에서 처음부터 학습하며 훌륭한 간호원장의 지도아래서 훈련받고 싶다”고 하면서 “대해의 저편의 선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탐구못한 채 다만 해변에서 자갈을 주워 노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는 「아이작 뉴턴」이 임종시에 한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 여성 그리고 간호원의 역할이 무한대임을 암시했다. 그의 지도성 이론은 충분히 현대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 결 론

1.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보

다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들과 마음이 통하는 길만 찾으면 자기의 소신은 그들과 함께 실현될 것이다. 별로 의식도 안하고 압력도 느끼지 않는 권위야말로 가장 완벽한 권위인 것이다.

2. 권위는 책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특성에서 나온다. 권위는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 것이다.

3. 남의 일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4.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5. 간호원장이나 수간호원은 일을 혼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나누어서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6. 부하직원에게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7. 지배욕이 없는 사람이 좋은 지배자가 될 수 있다.

8. 간호에 임했을 때 작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작은 일에 대해서는 소심하지 말 것이다.

Nightingale의 간호의 발상은 여성의 재발견과 인간의 건강을 위한 입장에서 사실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는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줄 알았으며 그의 사상은 단순한 간호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항상 간호, 과학, 종교의 연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Nightingale정신이란 무엇인가? Nightingale=백의의 천사] 또는 「Nightingale 정신=봉사와 희생정신」이라는 이미지가 일반화된 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풍조처럼 유포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사실 그의 정신은 다른 측면으로 발휘되었다. 즉 종교파벌이나 관료의식에 젖은 관료나 군의관들을 제쳐놓고 오로지 처참한 부상병의 버려진 인간성 회복을 위해 냉정한 지혜를 살려 강철같은 의지와 행동력으로 야전병원을 개척한 것이다. 크리티아 전쟁에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그의 50년간의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흐려지고 있으나 그의 크리티아 전쟁에서의 경험은 간호의 출발점에 불과했다. 그는 계속 영국 육군의 의료제도, 병원제도개혁, 병원건축, 건강교육, 인도에 있어서의 위생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는 등 놀라운 활동을 했다. 그는 자격있는 유능한 간호원에게 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보아 저임금, 무보수는 Nightingale 정신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Nightingale은 현실을 직시한 합리주의로 문제를 타개하려 했고 구체적 내용으로 제안한 일이나 저서는 물론 유명잡지에 원고료 기고한 일 등을 보아 홍보활동에 매우 능란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일보도 양보 못하는 자주, 자립, 불굴의 정신과 천부의 자질을 겸비한 Nightingale은 당대에 보기 드문 도량이 큰 여성선각자였다.

<18페이지에서>

안전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생활이 있고 환경이 있고 개개인의 개성이 있다. 간호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으로 그 본 바탕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즉 간호해야 되는 대상은 정신과 육체에 병을 가진 대상이 아닌, 균형을 잃은 환자만큼 우리의 업

무는 양심껏 이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어느 직장이나 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간호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과 인정을 받는 직업여성 중 직업인이어야 한다. 나 스스로 조금은 바보스럽고 손해보는 입장에 있다손 치더라도 좀더 오래 늦게까지 남아 남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어보자고 다짐해 본다.

<36페이지에서>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3만여명이 넘는 한국 간호원 면허 소지자가 다 같이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참간호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바랍직한 간호라고 생각하며 이 참간호에 나이팅게일의 생명관

을 덧붙여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직업의식보다는 생명이 있는 개체생명이 있는 집, 생명이 있는 읍, 면, 생명이 있는 국가, 생명이 있는 인류를 다루는 간호를 할 수 있는 참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